



numbers

vol. 234

한국인의 노후 준비

한국인, 유산을 기부하고 싶은 곳, '종교 단체'가 가장 많아!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3 혼인·이혼 통계
- ② 2023 세계 행복지수

2024. 4. 2.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인, 유산을 기부하고 싶은 곳, ‘종교단체’가 가장 많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3세로 최근 20년 사이 6세 증가했다.(통계청) 기대수명 연장은 단순히 생존 기간이 늘어난 문제가 아니라 길어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후 생활과 죽음에 대한 준비는 노인의 고민이 아닌 전 연령대가 대비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넘버즈 234호는 노후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비 실태를 알아보고, 아울러 교회 고령 목회자와 고령 교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가구의 21%에 불과했고, 노후에 조달 가능한 생활비는 적정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한편, 죽음 준비에 있어서는 유서 작성 등 상속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유산 기부와 관련하여 유산을 기부하고 싶은 곳으로 ‘종교 단체’가 1위로 응답 돼 주목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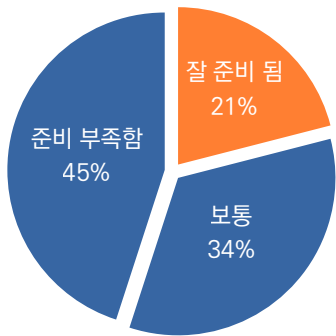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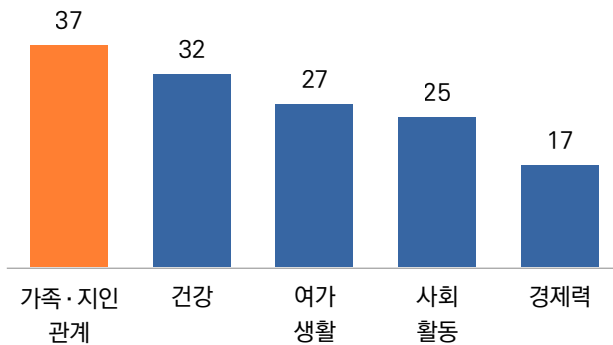
[한국인의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잘하고 있다', 21%에 불과!

- 우리 국민들에게 노후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준비됐는지 물어본 결과(KB금융그룹), 21%만이 잘 준비 됐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후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는 은퇴 가구를 제외한 국민에게 가족·지인 관계, 건강, 경제력, 사회활동, 여가생활 등 노후 생활에 관련한 5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더니 '경제력' 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17%)하게 나타났다.

[그림] 노후 생활 전반적 준비 정도* (일반 국민)



[그림] 노후 생활 부문별 준비 정도* (은퇴 가구 제외한 일반 국민, '잘 준비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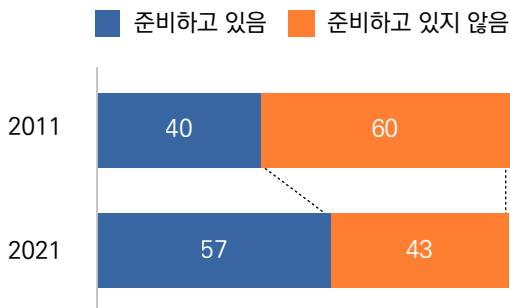
※출처 : KB금융그룹,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2023.11.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세종시 20~79세 남녀 3,000명, 온라인/대면 조사, 2023.01.03.~01.27.)

*7점 척도로 '잘 준비됨':5+6+7점, '보통':4점, '준비 부족함':3+2+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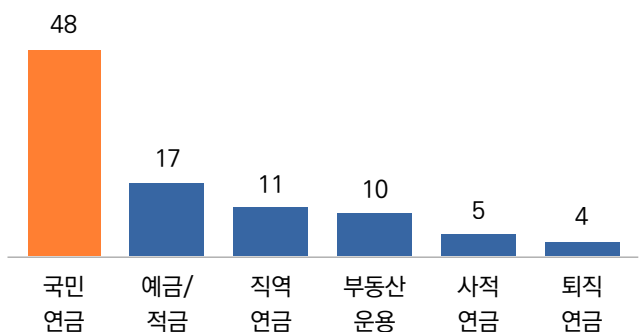
노인 43%, 노후 경제 준비 안 돼 있어!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경제 준비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21년 기준 '준비하고 있음' 57%, '준비하고 있지 않음' 43%로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비율의 경우 2011년에는 60%였는데, 10년 만에 43%로 크게 감소했다.
-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율이 절반가량(4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금/적금' 17%, '직역연금' 11%, '부동산운용' 10%, '사적연금' 5% 등의 순이었다.

[그림] 노후 경제 준비 여부 (65세 이상, %)



[그림] 노후 준비 방법* (65세 이상, 상위 6위,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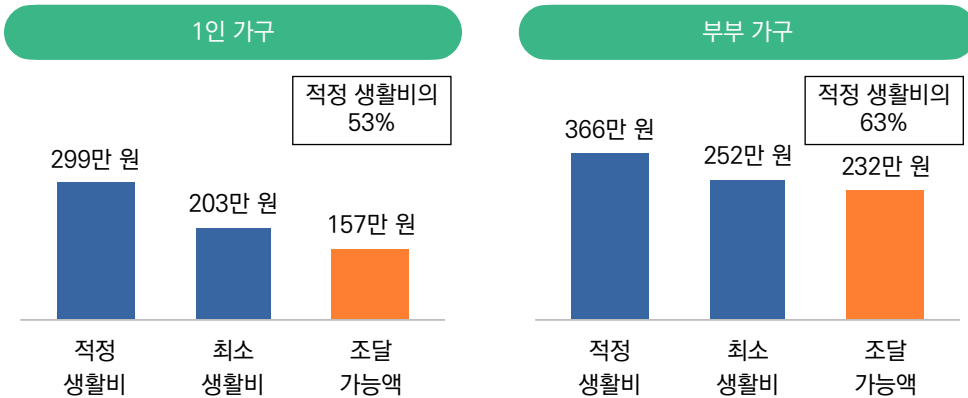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2022.09.29

*주된 응답 기준

조달 가능한 노후 생활비, 적정 생활비에 크게 못 미쳐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적정 생활비'와 '최소 생활비'로 나누어 물은 결과,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적정 생활비' 299만 원, '최소 생활비' 203만 원이었고,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적정 생활비'와 '최소 생활비'가 각각 366만 원, 252만 원으로 조사됐다.
-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1인 가구 157만 원, 부부 가구 232만 원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적정 생활비의 50~60%대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적정 생활비 대비 조달 가능액 차이가 1인 가구가 부부 가구보다 더 커, 1인 가구의 노후 생활이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예상하는 노후 생활비 (일반 국민, 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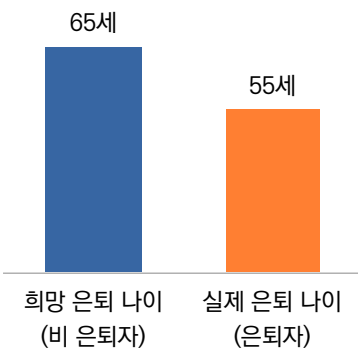


※출처 : KB금융그룹,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2023.11.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세종시 20~79세 남녀 3,000명, 온라인/대면 조사, 2023.01.03.~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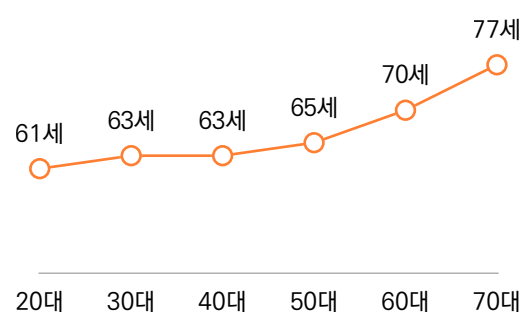
희망 은퇴 나이 65세, 실제 은퇴 나이 55세!

-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경우 은퇴 시점에 대한 예상 및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이런 희망 은퇴 시점은 실제 은퇴 나이와 동일할까? 아직 은퇴하지 않은 자에게는 '희망 은퇴 나이'를 묻고, 이미 은퇴한 자에게는 '실제 은퇴 나이'를 질문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 조사결과 '희망 은퇴 나이(비 은퇴자)'는 평균 65세인 반면 '실제 은퇴 나이(은퇴자)'는 평균 55세로 실제 은퇴 나이가 은퇴 전 예상 했던 희망 은퇴 나이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희망 은퇴 나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20대 61세에서 70대는 77세까지 올라갔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 생활도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정년 연장의 바람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림] 희망 은퇴 나이 vs 실제 은퇴 나이 (일반 국민)



[그림] 연령별 희망 은퇴 나이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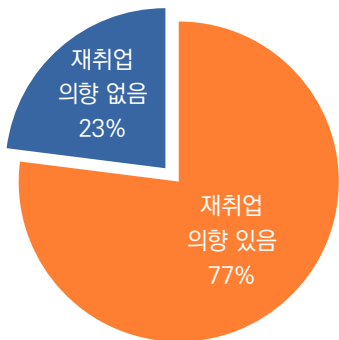


※출처 : KB금융그룹,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2023.11.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세종시 20~79세 남녀 3,000명, 온라인/대면 조사, 2023.01.03.~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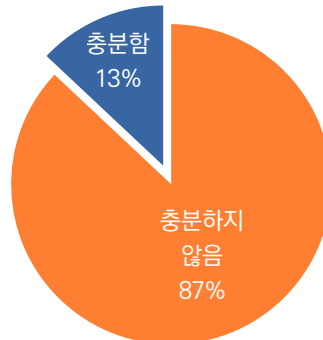
55세 이상 과거 경제활동 경험자, 더 일하고 싶지만 재취업 기회 충분치 않아!

- 앞서 은퇴자의 실제 은퇴 나이가 55세로 조사됐는데, 그렇다면 55세 퇴직 후 다른 일자리에 새롭게 취업하는 것에 대해 최근 발표된 '퇴직 후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 55세 이상 과거 경제활동 경험자 4명 중 3명 이상(77%)이 재취업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재취업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7%로 압도적이었다. 은퇴 후 전직을 해서라도 더 일하고 싶으나 기회가 많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의향
(55세 이상 경제활동 경험자)



[그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기회
(55세 이상 경제활동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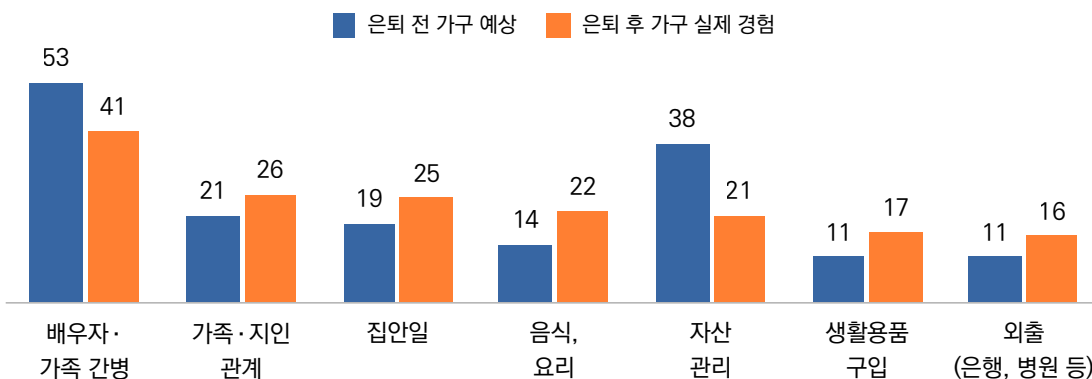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퇴직 후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2024.03.1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08.~12.11.)

노후 생활 애로 사항, '가족 간병 문제'!

- 은퇴 가구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에 관해 물었다. 은퇴 후 가구가 노후 생활 중 경험한 애로 사항은 '배우자·가족 간병'이 41%로 가장 컸는데, 이는 은퇴 전 가구가 예상한 애로 사항 1위와 동일했다. 이어 '가족·지인 관계' 26%, '집안일' 25% 등의 순이었다.
- 은퇴 가구의 실제 애로 사항을 은퇴 전 가구의 예상과 비교해 본 결과, '배우자·가족 간병'과 '자산 관리' 항목에서 은퇴 전 가구의 예상보다 실제 은퇴 후 가구의 애로 사항이 더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은퇴 가구의 노후 생활 애로 사항(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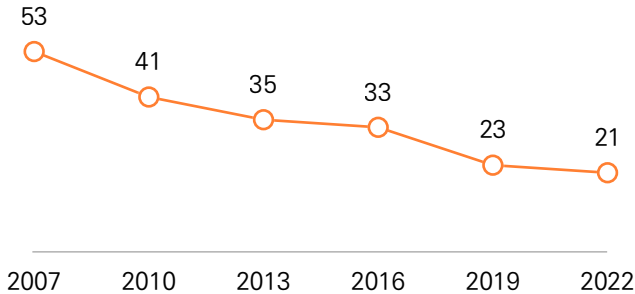


※출처 : KB금융그룹, '노후 준비 진단과 거주지 선택 조건', 2023.11.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세종시 20~79세 남녀 3,000명, 온라인/대면 조사, 2023.01.03.~01.27.)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 의식, 2007년 53%→2022년 21%

-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국민의 복지 인식조사(2022년)를 살펴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조사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것으로 전통적인 가족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 동의율 (일반 국민,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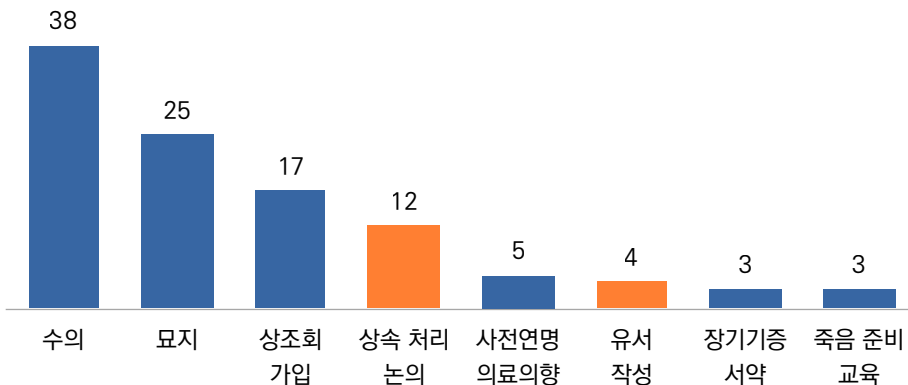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보고서
*5점 척도

02 [죽음 준비] 한국 노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비율 매우 낮아!

-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일반 노인의 죽음 준비에 관해 묻은 결과, '수의' 38%, '묘지' 25%, '상조회 가입' 17%가 각각 1~3순위로 나타나 주로 본인의 장례 관련 준비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처리 논의'(12%), '유서 작성'(4%) 등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죽음 준비하고 있는 비율 (65세 이상, 각 항목별 '준비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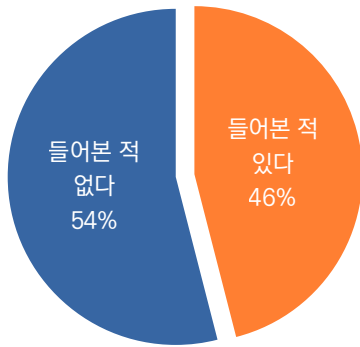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2020.11. (전국 만 65세 이상 10,0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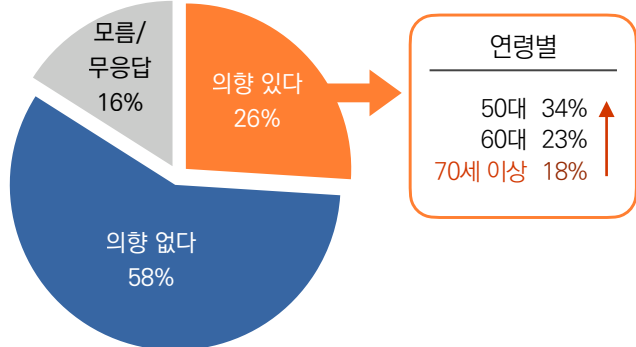
70세 이상 노인, '유산 기부 의향 있다' 18%

- 한국자선단체협의회에서 지난 2019년 전국 만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유산 기부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는데 해당 조사 결과 중 '유산 기부 인지 및 기부 의향'을 살펴보았다.
- 먼저 '유산 기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절반 가까이인 4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생을 마감할 때 유산 기부를 할 의향'에는 50세 이상 국민 4명 중 1명가량(26%)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70세 이상의 경우 18%가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유산 기부 인지도 (50세 이상 일반 국민)



[그림] 유산 기부 의향* (50세 이상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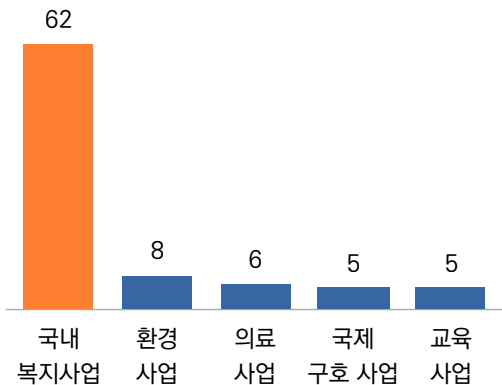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2019. 08.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 유·무선 전화 조사, 한국갤럽, 2019.08.05.-08.09.)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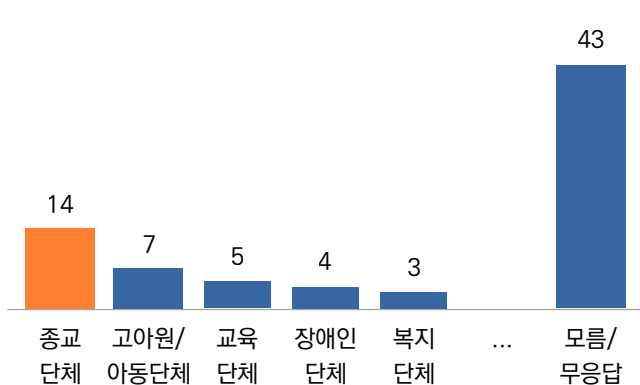
한국인, 유산을 기부하고 싶은 곳, '종교 단체'가 가장 많아!

- 유산 기부 의향자에게 희망하는 유산 사용처를 물었다. 그 결과, '국내 복지사업'이 62%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환경 사업' 8%, '의료 사업' 6%, '국제 구호 사업' 5% 등의 순이었다.
- 이번에는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구체적 단체'를 묻은 결과, '종교 단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고아원/아동단체', '교육단체' 등의 순이었다. 종교 단체에 유산을 기부하려는 의향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 여기서 '모름/무응답'이 4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산 기부 의향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부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단체별 적극적 홍보에 크게 영향 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희망하는 유산 사용처 (50세 이상 유산 기부 의향자, 상위 5위, %)



[그림] 유산 기부 의향 있는 단체 (50세 이상 유산 기부 의향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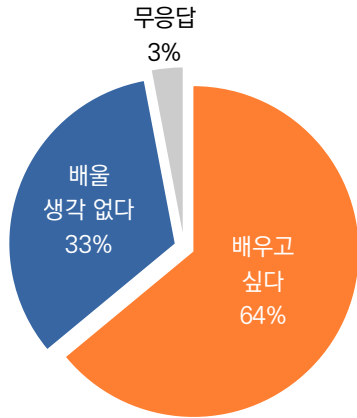


※출처 :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산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2019. 08.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 유·무선 전화 조사, 한국갤럽, 2019.08.05.-08.09.)

고령 교인 3명 중 2명, '죽음에 대한 교육 받고 싶다'

- 고령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강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고령 교인이 3명 중 2명(64%)가량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 교육에 대한 교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죽음에 대해 강의/교육받을 의향 (65세 이상 출석 개신교인)



※출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교인의신앙생활 및 의식에 대한 조사' (만65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2045명, 온라인 조사와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2022. 05.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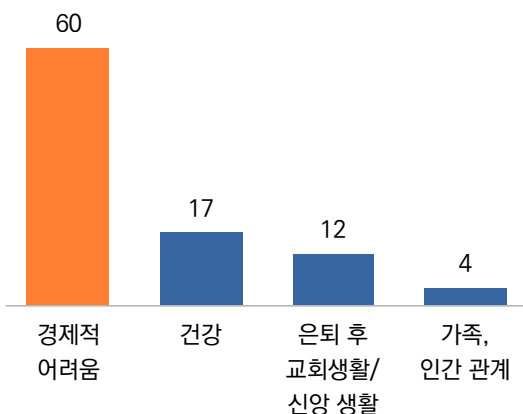
03

[목회자의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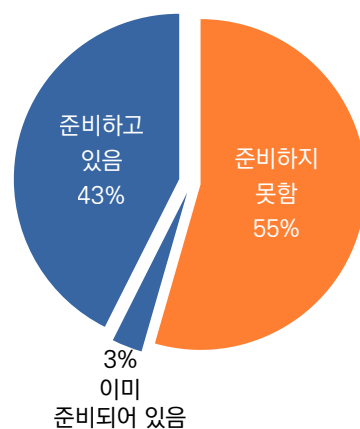
목회자의 노후 준비율, 일반 국민보다 낮아

-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어떨지 '목회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 결과를 통해 살펴 본다. 담임목사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부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6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은퇴 후 경제적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43%만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 은퇴 준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퇴 후 걱정되는 점 (담임목사, %)



[그림] 은퇴 대비 경제적 준비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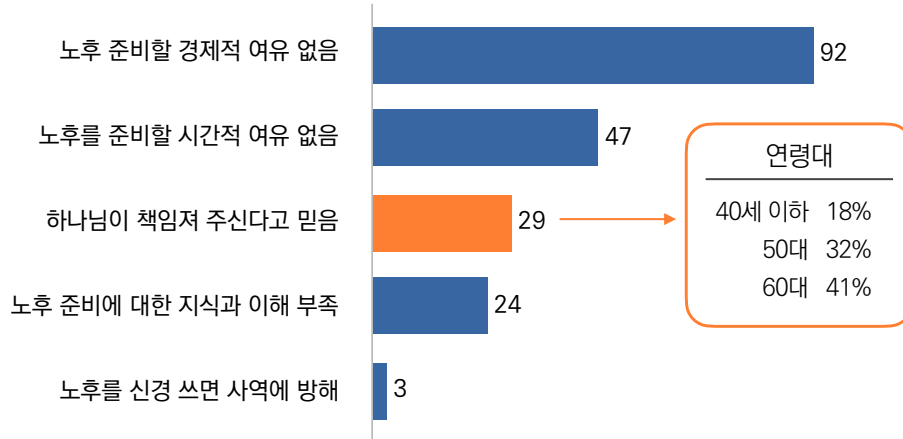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회지도자센터, '목회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 2022.09.05. (전국 담임목사 434명, 모바일 조사, 2022.08.17.~08.23.)

노후 준비 못한 목회자 10명 중 3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 목회자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 없음’이 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음’ 47%,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 29% 등의 순이었다.
-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림] 은퇴 대비 경제적 준비 못하는 이유 (은퇴 준비 못하고 있는 담임목사, 1+2순위, %)



※출처 : 한국교회지도자센터, ‘목회환경과 목회 실태 조사’, 2022.09.05. (전국 담임목사 434명, 모바일 조사, 2022.08.17.~08.23.)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60대가 되었는데 저출산 현상마저 겹친 결과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변곡점을 맞이할 기미가 없어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국민 3명당 1명 이상(36.7%)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현상으로 인해 한국 노인과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노후 준비 부족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¹⁾은 40.4%(2020)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이다.(OECD 회원국 평균 14.2%) 부부 가구가 조달 가능한 노후 생활비는 232만 원인데 이는 적절 노후 생활비 366만 원의 63% 수준이다. 우리 국민이 노후 생활 경제적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43%가 경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노인의 빈곤은 교회 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교회의 고령화는 사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인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023년에 이미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²⁾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3040세대,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하는 어려움이 있는 5060세대, 여기에 노인의 빈곤 문제와 교인수 감소까지 더해진다면 한국교회 내 헌금이 급격히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인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 노인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수의(38%)', '묘지(25%)' 등 주로 장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상속(12%)'과 '유서 작성(4%)' 같은 장례 이후의 문제에 대해 준비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최근 상속 재판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최근 8년 사이 40% 증가)³⁾, 추후 가족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 상속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먼저 교회는 노후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위한 노인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 교인의 10명 중 7명 이상(73%)이 주중에 교회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는데(넘버즈 159호 참조), 이러한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죽음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가족과의 상속 문제로 인한 분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죽음과 유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조사한 '유산 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18%가 유산 기부 의향이 있고, 유산을 기부하고 싶은 곳으로 '종교 단체(14%)'가 가장 많았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자발적인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 부족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다. 교회와 노인 교인이 서로 공생관계이며 상생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인식시키고 격려해야 한다. 노인의 필요함을 공급할 때, 교회와 지역 사회가 모두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다.

1)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

2) 넘버즈 224호,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10p.

3) 넘버즈 228호, '상속 재판 vs 이혼 재판 비교', 18p.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3 혼인·이혼 통계
2. 2023 세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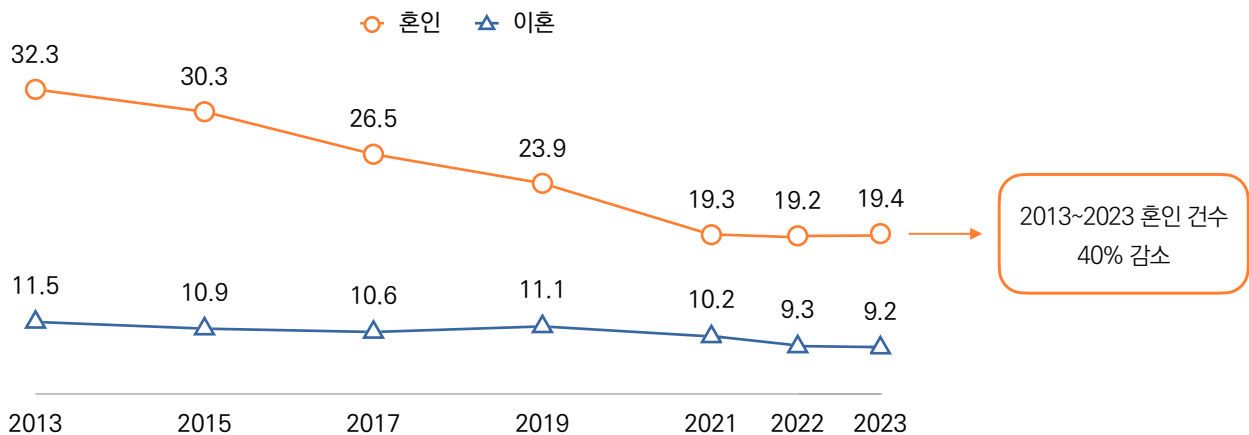


[2023 혼인·이혼 통계]

2023 혼인 건수,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 지난 3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한국인의 혼인·이혼 건수 추이를 살펴본다.
- 우리나라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2천 건) 증가했으며,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0.9%(-8백 건) 감소했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혼인 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32.3만 건에서 2023년 19.4만 건으로 무려 40%가 감소했다.

[그림] 혼인·이혼 건수 추이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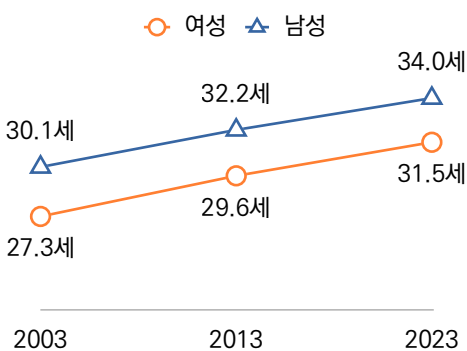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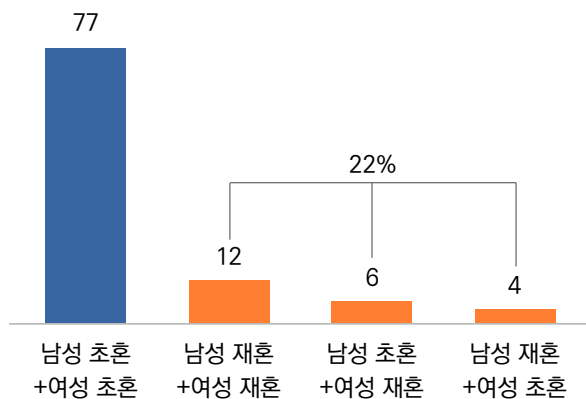
결혼한 부부 전체 5쌍 중 1쌍은 재혼!

- 한국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23년 남성 34.0세, 여성 31.5세로 나타났다. 초혼 연령은 10년에 2살 가량 상승하는 추세이다.
- 한편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77%, 남녀 둘 중 하나라도 재혼인 경우는 22%로 나타나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평균 초혼 연령



[그림] 혼인별 유형*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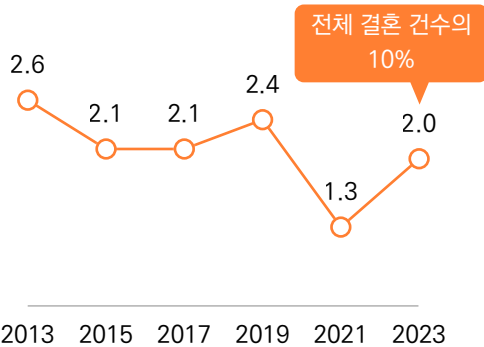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03.19.

*미상 제외

외국인과의 혼인, 전체 결혼 건수의 10% 차지!

- 2023년의 국제결혼은 총 2만 건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만 건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이후 급감하였고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23년 기준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전체 결혼 건수의 10%를 차지했다.
- 한국인과 혼인한 배우자의 국적은 아내의 경우 '베트남'이 34%로 가장 많았고, 남편의 경우 '미국'이 28%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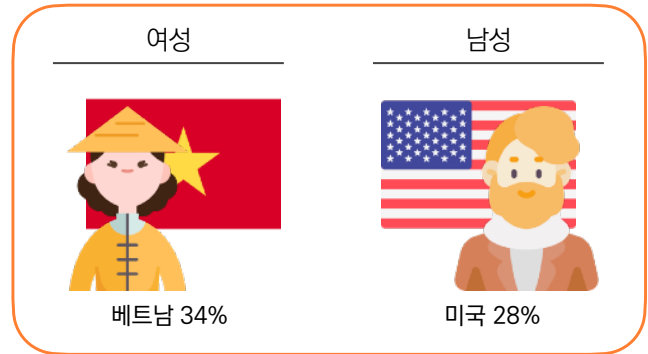
[그림]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추이 (만 건)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출처 :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03.19.

[그림] 외국인과의 혼인 시 배우자 국적 1위 (2023, %)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10년 전 대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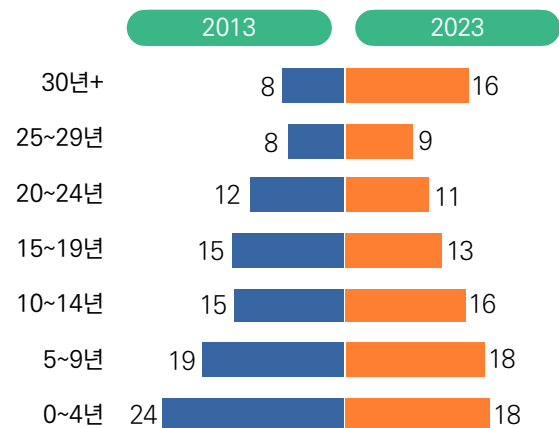
- 이혼한 자들의 혼인 지속 기간을 살펴본 결과, '4년 이하'의 이혼 건수는 10년 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27.3천 건 → 17.3천 건), '30년 이상'의 이혼 건수는 10년 전 대비 크게 증가한 것(9.4천 건 → 15.7천 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혼인기간별 이혼 구성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30년 이상' 황혼이혼 구성비가 2013년에는 8%였으나 2023년에 16%로 크게 상승했다. 부부가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후 갈라서는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표]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건수 (천 건)

혼인 기간	2013	2023
0~4년	27.3	17.3
5~9년	21.5	16.7
10~14년	16.9	13.8
15~19년	17.2	11.2
20~24년	14.4	10.3
25~29년	8.7	8.3
30년 이상	9.4	15.7

※출처 :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 통계', 2024.03.19.

[그림]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





[2023 세계 행복지수] 한국의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33위) 유지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국제 행복의 날(3월 20일) 즈음에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 세계 146개국 중 한국은 52위로 중상위권에 랭크됐고 이를 OECD 38개국 기준으로 재집계하면 OECD국가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 OECD국가를 기준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한국은 35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

[표] OECD 국가별 세계행복지수 순위 (2023 vs 2024)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핀란드	1	1	캐나다	13	14	스페인	26	27
덴마크	2	2	벨기에	17	15	칠레	28	28
아이슬란드	3	3	아일랜드	14	16	이탈리아	27	29
스웨덴	6	4	체코	18	17	슬로바키아	24	30
이스라엘	4	5	리투아니아	20	18	라트비아	31	31
네덜란드	5	6	영국	19	19	일본	32	32
노르웨이	7	7	슬로베니아	22	20	한국	35	33
룩셈부르크	9	8	미국	15	21	포르투갈	34	34
스위스	8	9	독일	16	22	헝가리	33	35
호주	12	10	멕시코	29	23	그리스	36	36
뉴질랜드	10	11	프랑스	21	24	콜롬비아	37	37
코스타리카	23	12	에스토니아	25	25	튀르키예	38	38
오스트리아	11	13	폴란드	30	26			

※출처 :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2024 세계 행복보고서, 2024.03.20.

*갤럽의 월드폴 조사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1000명 대상, 자신의 주관적 안녕 수준을 0~10점까지 점수로 나타낸 결과의 최근 3년치(2023년: 2020~2022, 2024년: 2021~2023) 평균값임.

*전 세계 146개국 통계 자료 중 OECD 국가만을 선별하여 재분석한 것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0호\(2024년 3월 4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등

[\[22대 총선 특집\] 선거구별 인구구성 및 인구변화 분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3.27.

사회 일반

[자살 시도해 응급실 찾은 43%는 30세 미만...19~29세 29.4%](#)

연합뉴스_2024.3.28.

[“자녀 양육 돈 많이 든다” 96%](#)

국민일보_2024.3.27.

[유치원 학부모부담 평균 17만원...“양질의 교육엔 추가지출 의향”](#)

연합뉴스_2024.4.1.

[코로나가 남긴 흔적...기대수명 52년만 ↓ 음주율 6년만 ↑](#)

중앙일보_2024.3.26.

[“국민 2명 중 1명은 AI 경험...생성형AI 경험률 17.6%”](#)

조선일보_2024.3.28.

[\[미디어 리터러시\] 신문 읽는 사람이 가짜뉴스 더 잘 알아챈다](#)

매일경제_2024.3.26.

[‘늪은 나무’ 77%... 한국, 숲도 고령화](#)

동아일보_2024.4.1.

[“과장님 모시기, 매달 5만원 내라뇨”...9급 사기 꺾는 악습](#)

중앙일보_2024.3.27.

[나이·자산 천차만별인데... 노인들 발 붙일 실버타운이 없다](#)

국민일보_2024.4.1.

[국민 80% “보수-진보 사회 갈등 가장 심각”](#)

국민일보_2024.3.27.

['빅5'의대 교수 절반은 사직 안해...사직서 내고도 대부분은 진료](#)

연합뉴스_2024.3.31.

[의대 정원 확대 여론,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3.27.

청년 ·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어린이 4명 중 1명은 과의존 위험군](#)

연합뉴스_2024.3.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유럽은 자영업자도 육아휴직...한국은 고용보험 들어도 불가](#)

연합뉴스_2024.3.24.

["직장인이 꿈은 저출생 해결책 1위는 자동육아휴직제·소득보장"](#)

연합뉴스_2024.3.31.

[작년 중고신입 4명 중 1명... "불황에 즉시 투입 '실무형 인재' 선호"](#)

조선비즈_2024.3.28.

[日 70대는 월 평균 128만원... 韓 70대가 받는 연금액은?](#)

조선일보_2024.3.24.

[중견기업 17% 지난해 적자...55%는 영업이익 감소](#)

한겨레_2024.3.31.

건강

[드라마 주인공처럼 기억력 저하도? 각양각색 증상 나타나는 '뇌종양'](#)

헬스경향_2024.4.1.

[잠 설치 뒤 "10년은 늙은 것 같다"는 말, 사실이었다](#)

조선일보_2024.4.1.

기독교 · 종교

[미자립교회 목회자 평균 월 사례비 41만3000원](#)

더미션(국민일보)_2024.4.1.

[나는 성소수자다' 답하는 미국 Z세대 급증...“영적갈급 부재 원인”](#)

더미션(국민일보)_2024.3.12.

[교회 떠난 3040 열 중 여섯 “나 다시 돌아갈래”](#)

더미션(국민일보)_2024.3.28.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S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